

부산을 넘어 전국에 울려 퍼진 평화의 노래

정전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현장

“이제 우리는 지난날을 대오각성하고 ‘위도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이라는 인류번영의 꽃을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에 만개시켜야 합니다. 공동번영을 위해 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대회가 9월 27일 부산 아시안드 주경기장에서 7만여 불자와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다.

7만 불자 평화 위한 한 목소리 “공동번영 위해 평화시대 열자” 진제 스님 “분단 터널 나올 때”

를 열어가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문명’이라 불려도 좋을 아름다운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정전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7만여 명의 시민·불자들의 간절한 평화메시지가 부산아시아드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2월 대화선포 이후, 한반도 평화 염원을 위한 7개월간의 불교계 평화 대장정의 본무대가 9월 27

일 부산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원만 성료됐다.
한반도평화대회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 남구 UN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대회 수록제’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본대회로 진행됐다.
본대회에서 명교와 명종에 이어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네팔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을 밝히자, 7만여 대중은 모두 일어나 합장하며 함께 평화를 기원했다. 이어 고불문이 낭독되고 봉행사, 인사말, 영상메

시지, 종정법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부산선언 등이 진행되며 평화 염원 분위기는 높아져 갔다.
이날 조계종 정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나라가 돌로 나뉘어 그 고혹스런 암흑 같은 세월이 어언 60여 년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가장 먼 형제가 되었다. 이제는 분단의 터널을 나와 서로가 마음을 열어 화목한 가운데 평화통일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해야 한다”며 불자들이 마음을 모으길 당부했다.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개최되는 ‘자비구현 인류화합 한반도평화대회’를 통해 우리가 할 일은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의 완성이며, 이를 위해 당사자 인 남북 그리고 6자회담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지구촌에서 전정의 종식을 위해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사회 각계의 축사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일심단결하는 원동력이 돼 온 한국불교가 이 땅에 평화의 뿌리

내리고 통일로 나아가는데 큰 원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탁났한 스님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 분들이 각자를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 전국의 피

박 대통령 “불교는 평화원동력” 탁났한 “마음의 평화 찾아야” 오케스트라 등 화합한마당 진행

난민을 따뜻하게 보듬었던 도시”라며 “불교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본대회는 진혼 사물놀이, 천도재에 이어 김영동 총감장의 지휘 하에 폴포츠, 바비김, 인순이, 이선희, 황병기, 이에주, 모스틀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레인보우 어린이 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불교합창사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진심으로 화합하는 무대가 진행되며 어울림 한마당으로 꾸며졌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한국 스님들 임란의 고향을 위로하다

조계종 교육원, 이총 위령재로 日 사찰 순례 시작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희생당한 조선인 12만 6000명의 귀와 코가 묻혀있는 교토 남산사 인근의 이총(귀무덤)을 참배하는 순례단 스님들.

조계종 스님들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희생된 선조들의 넋을 위로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동안 일본 관서지방 일대에서 ‘보광 스님과 함께 하는 일본 고찰 순례’를 진행했다.
이들 순례단은 첫 공식 행사로 교토 남산사 인근의 이총(임명 귀 무덤)을 찾아 두 번의 왜란으로 희생된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이총은 400여년 전 발발한 왜란으로 희생된 조선인 12만 6000명

에게서 베어난 귀와 코가 묻혀 있는 곳이다. 당시 왜군은 전과 보고를 위해 조선인의 귀와 코만 잘라 소금에 절여 본국의 지도부에게 헌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순례단은 이총에 위패를 올리고 관세음보살 정근, 반야심경 봉독으로 넋을 위로했다. 이어 1001체의 천수관음상으로 유명한 ‘산수산전도’ 절과 청수사를 순례했다. 또한 나라와 오사카의 유명 고찰을 돌며 한일불교 관계사를 새로이 조명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신종일 기자 현장 기사 치주 상보

혜민 스님 <멈추면...> 영문판 출간 예정

샘앤퍼커스, 미국 펄컨출판사와 계약

장기간 베스트셀러 행진을 하고 있는 혜민 스님의 저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영문판으로 출간된다.
이 책을 출간한 샘앤퍼커스는 세계 최대 출판 그룹인 미국 펄컨출판사와 영문판 출간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샘앤퍼커스측은 “펄컨출판사 존 시릴리아노 시니어 에디터가 이 책이 미국의 2~30대 젊은층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한국과 미국 문화와의 차이를 고려해 저자인 혜민 스님의 공동 재판집해 출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서 이미 누적 판매부수 240만부를 돌파한 이 책은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독자들도 접할 수 있게 됐다. 김주일 기자

사찰 난방비, 지열(地熱) 활용하면 1/4로 감소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사찰 내 지열 활용 세미나에서

전기료, 난방비는 사찰 입장에서 언제나 부담이 되는 문제다. 중단 차원에서 사찰에너지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이이다.
9월 25일 불교사회연구소 주최로 한국불교역사문화연구소에서 열린 ‘사찰 에너지 사용개선 방안과 지열에너지 활용 검토 세미나’ 또한 사찰에너지 활용에 관한 종합적 노력의 일부였다. 신 재생에너지 중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열(地熱)에너지 시스템을 사찰에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열에너지는 땅 속에서 일정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열에너지를 순환시켜 건축물의 냉난방을 해결하는 재생에너지다. 겨울에 김장독을 땅에 묻는 이유와 같다. 지열을 이용해 건축물의 보온을 해결하는 것.

“사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개선하는 대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인사말을 대신한 법안 스님(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탄소에너지 절감대책이 일상생활에 확산
대형사찰 연간 에너지비 1억원 초기투자비 10년 뒤 회수 가능
되고 미래 행동규범이 되고 있다”며 “에너지 효율 문제는 사찰 재정비용 절감을 위한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계가 더욱 소명감을 갖고 에너지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지열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들의 발표와 실제적으로 지열 시스템을 운영 중인 사찰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

어갔다.
지열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언급한 류형규 대림산업 기술개발원 박사는 “태양광은 일조량에 따라 에너지 이용효율이 들쭉날쭉 하지만 지열에너지는 땅 속 50~500m 구간을 이용해 12~25도의 에너지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며 “지열은 건물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에 냉난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열에너지의 경제성을 강조한 박성구 삼미지오테크 대표이사는 “800평 규모의 건물 난방비는 등유 이용시 월 700만원 가량이지만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그 부담은 1/4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경제성, 내구성, 친환경성 및 편의성을 감안할 때 지열시스템은 사찰에 타당하다”고 했다.
사찰 중에서 최초로 지열에너지를 활용한 경북 포항 천곡사 주지 정

오 스님은 “2005년 당시 660평 규모의 초기 설치비용이 4억원 정도였는데 그중 2억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며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로 보전되어야 할 사찰을 생각한다면 재산성은 논외로 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사찰이 1년 평균 1억원씩을 에너지비용으로 쓰는 걸 고려한다면 10년후에는 초기 투자비용 회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곡사는 비슷한 규모의 여주 신곡사와 비교했을 때 연간 에너지 비용이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사찰 냉난방 시스템별 경제성 분석(김성실 LG전자 기술팀 부장) △사찰 에너지 사용 개선 방안(송용기 삼양에코너치 상무) △사찰에너지의 생태적 관리방안(유정길 에코붓다 이사) 등이 토론 주제로 올랐다. 배현진 기자

불교의 올바른 실천은 무엇인가

불시넷 9월 24~26일 연속 집중토론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가 34대 총무원장 선거 총재 제안을 위한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9월 24일 조계사 앞 템플스테이기념관 3층 보현실에서 열린 첫 번째 집중토론회에서는 ‘불교관과 수행’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도법 스님(자성교과 신결사주진분부 부부장), 일감 스님(불교신문 주간), 정웅기 불시넷 운영위원장, 임장수 중앙신도회 부회장, 현희현 에코붓다 사무국장, 전주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소중섭 전사시저널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도법 스님은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불교의 실천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한국불교의 실천론과 불교관이 바로설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의 시작을 열었다.
정웅기 불시넷 운영위원장은 “스

님, 재가교육 다 바꾸자는 얘기가. 종단에서 일하거나 불교계 사회복지재단 종립학교 종사자가 3만명 이상 된다고 한다. 이들이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전 총무원들의 안거를 하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불교의 목적을 구현하는 보살 종무원 제도의 도입, 인권문제 등 지적
중무원 안거제도 제안도
입, 인권사각지대·황제 주지 해결 등을 위한 공개 토론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불시넷은 9월 24일 ‘불교관과 수행’에 관한 토론을 시작으로 9월 26일까지 평등한 사부공동체, 사회참여, 공동체문화의 소용 등에 대해서 연속 집중토론회를 가졌다. 정혜승 기자 bwjhs@hyunbul.com

보조사상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및 사찰순례

“구산 스님의 생애와 한국 선(禪)의 세계화”

Master Kusan's Life and Globalization of Korean Seon(禪)



구산(九山 1910~1983) 스님은 조계종 초대종정을 역임한 효봉(曉峰) 스님의 계승자로서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 지눌(知訥) 선사의 목우가풍(牧牛家風)의 재흥을 통해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대표적인 선지식입니다. 구산 스님께서는 일반인 중심의 대중수련회를 처음 실시했으며, 불일국제선원을 최초로 개원해 외국인을 출가자로 받아들여 한국의 간화선을 널리 선양하면서 세계화하는데 전력하셨습니다. 또 철저한 수행자이면서도 장문의 행서를 통해 불교정화운동의 흐름을 주도했고, 대승보살의 실천행인 ‘육바라밀(六波羅密)’에 봉사(奉仕)를 하나 더 포함시켜 칠바라밀(七波羅密)을 주장하여 생활화했던 대중불교의 선각자이기도 합니다. 승보종찰 송광사와 보조사상연구원은 구산 스님 열한 30주기를 맞아 ‘구산스님의 생애와 한국 선(禪)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참다운 출가자의 사표라 불리는 구산 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통해 한국불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게 될 이번 행사에 부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법산(法山) 합장

국제학술대회 세부일정 1일차 10월 4일(금)

| | | |
|---|---|---|
| <p>주제발표 1 구산스님의 사상과 결사 10:10 ~ 11:00 발표: 고영섭(동국대) 논평: 윤원철(서울대) 九山 秀薩의 살림살이와 사교방식 - 한국불교사적 지위와 한국불학사적 위상</p> <p>11:00 ~ 11:50 발표: 김정철(위덕대) 논평: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九山 秀薩의 정화와 결사운동’</p> | <p>주제발표 2 구산스님의 사상과 간화선 13:00 ~ 13:50 발표: 로버트 버스웰(캘리포니아주립대학, UCLA) 논평: 최익선(한국학중앙연구원) 간화선(看話禪)에 있어서 의경(疑情)의 전환 The Transformation of Doubt(Ujijong 疑情) in Kanhwa Son看話禪</p> <p>13:50 ~ 14:40 발표: 마틴 베츨러(불교 명상지도자) 논평: 변희옥(서울대) 화두 선과 현대의 만남 The Encounter of Hwadu Seon and Modernity</p> | <p>주제발표 3 구산스님의 사상과 국제포교 15:00 ~ 15:50 발표: 르노 네우 바우(기토대학, 에콰도르) 논평: 최성렬(조선대 명예교수) 한국불교와의 인연: 남아메리카 포교활동에 있어 구산 스님의 가르침과 한국 불교의 불불교적 가치 My Affinities(因緣) with Korean Buddhism: the value of Kusan Sunim's teachings and the Korean Buddhist ecumenical tradition(通佛敎) in propagating Buddhism(布敎活動) in South America.</p> <p>15:50 ~ 16:40 발표: 스티븐 베츨러(불교 명상지도자) 논평: 정덕스님(중앙승가대) 선불교 의심수행(疑心修行)의 역사 A Short History of Doubt</p> |
|---|---|---|

사찰순례 세부계획 10월 5일(토) ~ 12일(토)

- 2일차 10월 5일(토) 방정 스님, 주지 스님 정견 및 경내 관람
- 3일차 10월 6일(일) 효봉 스님의 제사
- 4일차 10월 7일(월)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송광사 주변)
- 5일차 10월 8일(화)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산백암암 - 응석사 - 미려사 - 용화사)
- 6일차 10월 9일(수)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표종사 - 통도사)
- 7일차 10월 10일(목)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동화사 - 해인사)
- 8일차 10월 11일(금)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청암사 - 수도암)
- 9일차 10월 12일(토) 구산 스님 수행처 탐방 (송광사 - 서울 이동)